

2024. 3월

우주항공산업 동향

우주항공과 미래도약
함께 합니다.



우주항공산업 동향

관 내 동향

윤 대통령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행사 참석

-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행사에 참석했다.
- 윤 대통령은 “2027년까지 우주개발 예산을 1조 5,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며 “2045년까지 100조 원의 민간 투자를 끌어내고 25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 “우주산업은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을 탄생시키는 미래 성장 동력”이라며 “우주항공청 설립, 우주경제 로드맵 제시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 체제를 출범시켰다”고 설명했다.
- 또한 “클러스터 성공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우주환경시험시설처럼 민간기업이 개별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핵심 인프라를 정부가 구축하고 정부, 민간 매칭 우주 펀드를 2배 이상 확대해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했다.
- 이는 경남과 전남, 대전을 중심으로 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계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우주항공 분야 기업인과 연구자 등 450여 명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완수 경남도지사, 박동식 사천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등이 참석했다.

사천 항공산단 메타버스 구축 순항

- 경남도, 사천시, 경남테크노파크가 수행하는 항공산단 메타버스 비즈니스 협업 플랫폼 구축 과제가 과기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1차 연도 연차평가에서 1위(최우수 과제)에 선정됐다.
- 메타버스 선도 프로젝트 사업은 현재 총 7개(보훈, 국방, 의료, 교육, 산업단지 1~2, 친환경 선박)의 과제가 진행 중으로 항공산단 메타버스 비즈니스 협업 플랫폼 과제는 산업단지 분야다.
- 이 사업은 작년 6월 공모에 선정돼 15개 기관이 참여하는 협력체가 항공국가산단 일원을 메타버스 기반의 최첨단 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한 과제를 추진 중이다.
- 2025년까지 3년간 총 136억 원(국비 73, 지방비 37, 민간 26억 원)을 투입해 항공산단의 실제 환경과 유사한 가상공간인 메타버스를 구축하고, 항공산단 내 기업들이 협업할 수 있는 비즈니스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경남도는 5개 평가기준(목표달성도, 기술·서비스 우수성, 성과가치 우수성, 사업 타당성, 사업관리 적정성)과 사업 목표 대비 수행 결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7개 과제 중 최우수 과제로 선정됐다.
- 사업이 완료되면 메타버스를 통한 실시간 항공기 수주와 고객 관리로 수주 증대 효과와 함께 수주 항공산단 기업들의 공동연구개발, 제품시연, 교육훈련 등 다양한 비즈니스 활동도 기대된다.

사천시·산단공·KAI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 업무협약 체결

- 사천시,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이하 산단공), KAI가 사천 산업단지 내 항공 중소기업의 제조공정 자동화·효율화를 위한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은 공공 및 민간 제조시설에 로봇공정모델 실증을 통한 첨단제조로봇 활용기술 시장 확산으로 제조업 디지털 전환 가속화 및 로봇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 산단공과 KAI는 이 사업을 위해 KAI 협력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로봇공정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 항공부품 제조 중소기업을 발굴했으며, 사천시와 참여 기업의 사업비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지원 방안 협의 등 사전 준비를 진행했다.
- 협약서에는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발굴 ▲인적·물적 지원을 통한 기술지도 지원 ▲실증사업 관련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공모 공동 대응 ▲로봇 활용 방안 컨설팅, 제조로봇 도입 실증 ▲민간부담금 재정 지원 등에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 이를 통해 항공제조 분야 근로환경 개선, 노동인구 감소 대응 및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사천시의회 건설항공위원회, 디엔엠 항공 방문

- 사천시의회 건설항공위원회(위원장 전재석)가 사천시 우주항공과와 함께 디엔엠항공을 방문했다.
- 이번 방문은 관내 항공업체의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우주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소통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다.
- 디엔엠항공은 항공기 부품의 알루미늄 원자재와 복합 소재 등을 보관, 관리, 절단하고, 항공기의 대형 Wing Rib(날개골격) 생산 및 항공기 부품 조립에 필요한 각종 치공구를 제작하는 회사이다.
- 이번 현장 방문에서는 디엔엠항공의 생산공정과 품질 관리, 안전 관리, 인력 양성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항공업체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수렴했다.
- 또한 우주항공과와 함께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우주항공산업 육성 방안도 논의했다.
- 건설항공위원회는 사천시의 주요 건설 및 우주항공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심의하고 지원하는 위원회로써 총 5명으로 구성돼 있다.
- 전재석 위원장은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개청되면서 우주항공산업에 관심이 높아진 것을 반갑게 생각한다"며 "항공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원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KAI, 미래비행체·FA-50 단좌형 개발에 909억 투자

- KAI가 미래비행체(AAV)와 FA-50 단좌형 개발에 총 908억 6,000만 원 투자를 결정하고 미래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 우선, AAV 개발 1단계 사업에 553억 원을 투입하여 AAV 개발을 핵심기술 단계에서 체계개발로 전환하고 상용화에 나설 예정이다.
- 이번 투자는 2028년까지 총 1,500억원 규모로 예상되는 AAV 체계 개발 중 1단계(2024년~2025년)에 투입되는 비용으로 기본설계와 상세설계가 진행되며, 분산전기추진, 비행제어, 비행체 통합설계 등 핵심기술 실증을 추진한다.
- 향후 2단계(2026년~2028년) 사업에서는 비행체 제작과 시험비행을 완료하고 2031년까지 국내와 미국 연방항공청(FAA) 인증 획득을 통해 국내외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다.
- KAI는 자체 개발 AAV 기술 실증기를 바탕으로, 향후 우주항공청 과제와 연계해 한국형 표준 AAV 플랫폼 개발을 추진하고 민군 겸용 AAV 개발까지 사업화하여 2050년까지 국내외 누적 판매량 2만 3,000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 FA-50 단좌형 개발에도 355억 6,000만원을 투입해 전 세계 다목적 전투기 시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신규시장을 창출할 계획이다.
- FA-50 단좌형은 공대공·공대지 작전임무반경 확대 등 다목적 임무 수행능력이 더욱 강화되고 다양한 옵션 제시를 통해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가능해 사업기회가 다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KAI는 해외 수출과 국내 사업화 등 총 450여 대로 예상되는 단좌형 시장에서 5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달성해 최대 300대 이상의 시장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 내 동 향

경남도, 우주항공기업 초청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 경남도가 롯데시티호텔 대전에서 ‘국내외 우주항공기업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
- 경남도와 경남투자청이 공동 주최한 이번 설명회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위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국내 우주항공기업 임직원을 비롯한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 설명회에는 경남의 우주항공분야 투자환경 및 투자지원제도 소개, 지역혁신클러스터 우주항공분야 지원제도 소개, 1:1 맞춤형 투자 상담 등이 진행되었다.
- 또한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의 ‘한국 우주항공산업 발전방향 및 전략’을 주제로 특강도 진행되어 큰 호응을 받았다.
- 특히, 이날 설명회에는 사천시,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참여하여 올해 말 준공을 앞둔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를 집중 홍보하고 기업인들과 투자 상담 및 네트워킹 시간을 가졌다.
- 도는 그동안 수도권 등의 잠재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각종 산업군의 기업인들을 초청해 매년 수도권에서 대규모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이를 과감히 폐지하고 유치 타깃 산업별 기업들의 수요 분석을 통한 ‘산업별 맞춤형 투자유치 설명회’로 전환했다.
- 향후 우주항공산업뿐만 아니라 방위, 원자력, 이차전지, 에너지 등 타깃 산업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속형 산업별 투자유치 설명회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경남도-경남TP, 경남 방산기업 지원사업 통합설명회 개최

- 경남도와 경남테크노파크(이하 경남TP)가 경남TP 본부 대강당에서 경남 방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2024년 경남 방산기업 지원사업 통합설명회’를 개최했다.
- 설명회에는 경남도, 경남TP,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창원산업진흥원, 방위산업공제조합, 특허법인 위더피플, 경남 방산 중소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경남 방산 강소기업 육성지원사업 등 9개의 추진사업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 경남TP는 ▲방산혁신클러스터(제품고급화 지원, 중소벤처기업 시험지원) ▲경남 방산 강소기업 육성지원(도약·점프·완성 패키지)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금형, 설비) ▲경남 방위산업 협력체계 구축(대중소 상생, 민군 협력) 업무를 추진한다.
-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방산혁신클러스터(방산기업지원센터) ▲경남 국방벤처센터 지원(지자체 개발 등) 안내를 통해 방산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창원산업진흥원은 지역 방산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방산 혁신클러스터(방산소재부품개발, 해외수출) ▲이순신방위산업전 안내 ▲방위항공부품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 방위산업공제조합은 ▲방위산업 금융지원(보증, 공제)을 통해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안내하였으며, 특허법인 위더피플에서는 방산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취득과 수출 마케팅 역량 강화 지원에 대해 소개하였다.
- 경남TP는 2023년 방위산업본부를 신설하여 경상남도의 "23-’27 경남 방위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따라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TP, 도내 항공기업 8개사와 세계 항공시장 공략

- 경남TP가 도내 항공기업 8개사와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된 '2024 항공우주 및 방산 공급자 총회(이하 ADSS)'에 참가해 총37건, 2억 2천만 달러(한화 약 2,945억 원)의 상담 성과를 올렸다.
- 미국 워싱턴주와 보잉사가 공동 주관하는 ADSS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로 올해 7회차를 맞이했다.
- 이번 행사에는 보잉, 에어버스 등 유수의 글로벌 항공기업들이 참가하여 아인스스카이, 아토솔루텍, 에어로매스터, 이엠코리아,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키프코전자항공, 하이즈항공 등 경남기업들과 열띤 상담을 진행하였다.
- 경남TP는 해외 고객들과 도내 기업 간의 1대1 비즈니스 미팅 지원과 경남 항공기업들 홍보에 중점을 두고 참가 기업에 부스 설치비와 온라인 B2B 미팅 참가비, 통역비 등을 지원하였다.
- 또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달라스 무역관과 협업을 통해 세계적 항공기업인 레이시온과 에어버스 헬리콥터를 방문하여 B2B 미팅을 실시하고 제조 현장을 방문하여 주요 공정 및 품질 보증 과정을 살펴보는 기회를 가졌다.

국 내 동 향

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수은법 개정안' 국회 통과

- 한국수출입은행법(수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가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 개정안은 2014년 법 개정 이후 10년간 묶여있던 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상향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 의원 211명 중 찬성 148표, 반대 29표, 기권 34표로 가결됐다.
- 수은은 수출 촉진, 중소·중견기업 해외 진출 증대, 해외 투자와 해외 자원개발산업에 대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정책금융기관이다.
- 그러나 폴란드 방산 수출과 관련해 수은의 금융지원 한도 대부분이 소진된 탓에 폴란드 2차 계약의 취소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만연했다.
- 이에 방산업계는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국회에 꾸준히 요청해왔다.
- 이로써 폴란드 방산 수출이 원활히 진행되는 것은 물론 방위산업 등 국내 대형 수주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항공우주 공정고도화 기술개발 추진

- 산업부가 첨단 우주항공 부품 생산공정 혁신과 항공 제조업체의 수출경쟁력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8년까지 총 124억 원 규모의 ‘항공우주 부품 공정고도화 기술개발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 이번 사업은 항공우주 부품 제조공정에 로봇, AI, 디지털 트윈 등을 접목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 국가전략 기술로드맵과의 연계성이 높은 민간 여객용 또는 군용 항공기 부품에 적용가능한 과제 중심으로 연구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 올해는 6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업들은 약 20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수출 연계 초도품 개발 및 공정기술 고도화 기술개발 연구 등에 활용하게 된다.
- 본 사업은 오는 4월 15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해 외 동 향

우주비행사 태운 스페이스X, 국제우주정거장 도착

- 미국, 러시아 국적의 우주비행사 4명을 태운 스페이스X의 우주선 크루 드래건이 3월 5일 국제우주정거장(ISS)과 도킹에 성공했다.
- 크루 드래건은 지난 6개월간 ISS에서 임무를 수행한 우주인 4명과 교대하기 위해 미국 플로리다주 미 항공우주국(NASA)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팰컨9 로켓에 실려 발사되었다.
- 특히 유일하게 러시아 국적인 러시아 공군 엔지니어 알렉산더 그레베켄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러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이날 미국 우주선에 탑승해 눈길을 모았다.
- 이는 앞서 2022년 7월 나사와 러시아 우주국(ROSKOSMOS)이 우주선 좌석 교환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 이후 올해 8월까지 ISS에 머물면서 미세 중력을 통한 퇴행성 질환 연구 등 총 250여 가지 과학 실험을 시행할 계획이다.
- 한편 나사는 2020년 5월부터 스페이스X를 ISS 우주비행사 수송에 활용했으며 이번이 스페이스X를 활용한 8번째 비행이다.

보잉, 동체 납품 업체 스피릿 재인수 협상

- 보잉사가 항공 안전을 강화하고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스피릿 에어로시스템즈(이하 스피릿)를 인수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 스피릿은 2005년 보잉에서 분사된 항공기 동체 생산 기업으로 1월 초 비행 중 보잉 737 맥스 항공기 문짝이 뜯기는 사고의 주범이기도 하다.
-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스피릿의 생산과정을 검사한 결과 항공기 문 플러그가 인계될 때 고정 볼트 4개가 빠져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보잉의 제조공정 및 생산관리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 이에 보잉은 스피릿을 재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스피릿도 별도의 입장을 발표하여 협상 중임을 확인하고 북아일랜드에 있는 에어버스 날개 생산 사업부의 매각을 검토 중이다.
- 전문가들은 이는 보잉 매출이 전체 수익의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피릿에게는 큰 이득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보잉은 향후 항공 안전을 강화하고 품질을 개선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작성일	2024. 3. 20.(수)	보고일	2024. 3. 21.(목)
부서명	항공경제국 우주항공과	담당자	김난주(055-831-3473)